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신앙의 원칙

1. 성경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다. 구약과 신약 모두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살전 2:13; 시 119:105; 렘 15:16.

성령께서 친히 성경기자들의 이해를 밝히셨으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아래 지도되었다. 벰후 1:19-21; 딤후 3:15-17.

성경은 이 세상과 인류의 시초, 죄의 시작, 거룩한 구속의 경륜을 기록하고 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새 땅에서 누릴 수 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을 담고 있다. 이미 성취된 예언들은 성경이 거룩한 근원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한다. 사 46:9, 10.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나타낸다.

성경은 하나님의 참되고 완전한 계시로서 우리의 믿음과 생애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하고도 유일한 표준이다.

2.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믿는다. 그분께서는 창조자이시며 지배자이시며 모든 우주를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창 17:1; 시 90:1, 2; 91:1, 2; 139:1-12; 사 44:6; 45:5, 6, 18; 딤후 6:16.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적 존재를 가진 것으로 믿는다. 요 4:24.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그분께서는 인격적 존재를 가진 분으로

나타내셨다. 창 1:26, 27; 단 7:9, 10.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히 11:6.

3.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형상의 본체이시다. 히 1:1-3, 8; 골 1:15; 2:9; 딤편 3:16.

(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가지시고 하늘에 계셨음을 믿는다. 요 1:1, 2; 빌 2:5, 6; 골 2:9; 요 1:14; 미 5:2.

(나) 그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마 1:18-23.

(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요 1:1-3; 골 1:16, 17.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그분의 아들 안에서 계시하셨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히 1:3)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땅 위에 계셨다.”-교회증언 8권, 265.

(라) 그분의 성육신(聖肉身)과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는 자신을 구속주로 나타내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타락한 인류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재자이시다. 그분의 생애는 모든 인생과 특별히 그분의 제자들에게 유일한 모본이 된다. 행 4:12; 빌 2:5-8; 딤편 2:5, 6; 히 2:17; 뱀전 2:21; 신 18:15; 요 18:37.

(마) 오늘날 그분께서는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써 최후의 속죄 사업을 행하고 계신다. 히 8:1, 2; 7:24, 25; 4:15, 16; 9:24-26.

4. 성령

우리는 성령께서 태초로부터 역사하고 계셨으며 구속사업에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심을 믿는다. 창 1:2; 시 51:11; 사 63:10, 11.

성경은 첫장으로부터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창 6:3.

우리는 성령께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심을 믿는다. 그분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개심으로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회생시키셔서 변화시키신다. 그분께서는 거룩한 뜻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죄를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요 3:5, 6; 14:16, 17; 16:13

성령을 통해서만 성경 진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할 수 있다. 요 14:26; 행 1:8.

그러나 성령의 본성은 오묘이다.-행적 52.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져야 한다. 마 28:18-20.

5. 인류의 시초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완전하고 자유의 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창 1:26-28.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理性)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부조, 45.

인류의 근원은 이해될 수 있다. 거룩한 창조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히 묘사되어 있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어떤 이유도 없다.

“사람이 하등 동물이나 식물에서 서서히 발전하여 진화되었다고 상상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

이러한 학설은 창조주의 위대한 사업을 사람의 좁고 세속적인 개념의 수준으로 저하시킨다.”-부조, 45.

6. 구속의 경륜

우리는 거룩한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세상에 죄를 들어 왔음을 믿는다. 창 2:16, 17; 3:6.

이리하여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되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롬 5:12; 6:23; 시 14:3; 욥 14:4.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길을 잃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었다. 예수께서 죄의 선고와 징벌을 받아들이는데 유일한 가능성이 놓여 있었다. 요일 4:16; 요 3:16; 사 53:4-6; 뱀전 2:24.

죄의 용서와 칭의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과 그분의 의로운 생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롬 4:25; 5:1; 3:2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 요 1:29; 뱀전 1:18-20.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충성된 순종이 나타나게 되고 죄인은 영생을 받는다. 순종은 구원의 참된 열매이다. 롬 8:1-4; 요 14:15, 21.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선물에 사랑과 감사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순종한다. 엡 2:8, 9; 요 15:10; 요일 5:3.

7. 하나님의 십계명(율법)

우리는 십계명은 완전하며 모든 인간의 생애와 행위의 안내서로써 유효하다고 믿는다.

전 12:13; 마 5:17, 18; 롬 3:28, 31; 7:12; 계 12:17; 14:12.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으며 직접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셨음을 가르친다. 출 31:18; 32:15, 16; 신 4:12, 13.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시인하고 지킬 때에 우리는 아버지와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주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뜻과 품성의 계시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품성을 반영하며 거룩한 완전을 묘사한다. 특별히 율법은 사랑과 의와 거룩한 질서의 원칙을 나타낸다. 롬 13:10; 요일 5:3.

율법은 영적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지킬수 있다. 그리하여 시련과 핍박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일한 대답은“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 5:29.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출 20:2-17)은 다음과 같다:

I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II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

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III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IV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V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VI

"살인하지 말지니라."

VII

"간음하지 말지니라."

VIII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IX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X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8. 넷째 계명 - 안식일

우리는 넷째 계명도 다른 계명과 같이 불변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유효함을 믿는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육일간의 창조후에 축복하시고 그분께서 그 날에 안식하시고 성별하심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과 인간에게 한날의 안식을 위해 주어졌다. 그러므로 또한 그 날이 주의 날로 지정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날에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하셨다.

또한 안식일은 구속의 상징이며 성화의 표가 되고 순종의 증언이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릴 영생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거룩한 안식의 날은 마지막 시대에 그분의 순종하는 자녀들의 특별한 표이다. 창 2:1-3; 출 20:8-11; 31:15; 레 23:3; 막 2:27, 28; 눅 16:17.

금요일(예비일)에 제칠일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준비하는 일에는 안식일을 위한 음식 준비와 집안 청소와 의복 준비, 목욕을 포함하며 그리하여 우리는 안식일을 평안과 고요함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다. 출 16:23.

"예비일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이 날에 교회나 가족 중에서 형제 사이에 갈라진 것을 다 해결해야 한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악의를 영혼으로부터 몰아내어야 한다.

겸손한 정신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약 5:16)."-교회증언 6권, 356.

여행에 대해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기별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여행을 할 필요가 있는 때가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다른 날에 표를 사고 모든 일을 마무리지어 놓아야 한다. 여행을 떠날 때에 우리의 목적지에 안식일에 도착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들여 여행 계획을 짜야 한다.”

-교회증언 6권, 360.

안식일에 우리는 모든 세속적이고 사업과 관련된 여행과 대화와 활동으로부터 삼가야 한다.

우리의 대화는 영적인 성질을 지녀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사 58:13, 14.

“하나님께서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그들을 안락하게 하는 데 요구되는 노동은 자비의 일이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부조, 296.

또한 우리는 자녀들이 안식일에 세상 학교에 출석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이다.

창조시의 순서와 조화를 이루어 한 날은 해질녘에 시작하여 끝난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며 안식일 저녁 해질녘에 끝난다. 창 1:5; 레 23:32; 눅 4:31, 40.

9. 결혼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낙원에서 제정하셨으며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창시자는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들 중의 하나였으며, 타락 후에 아담이 낙원 문들 저편에서 가져온 두 제도 중의 하나이다.”-부조, 46.

결혼 제도는

(가) 남녀가 사랑가운데 서로를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창 2:18;

(나)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창 1:27, 28; 고전 7:1-9

결혼 서약은 필생의 사랑과 남녀의 충실함에 기초되어야 한다. 마 19:4; 말 2:14(하단).

하나님께서서는 결혼제도를 이타심과 사랑, 명예와 존중, 자아 망각과 책임의 토대 위에 설립하셨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으므로 그가 보통 가정을 이끌고 책임을 지게 된다. 여자는 남자의 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남자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엡 5:23, 25.

참된 결혼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결합- 믿음, 마음, 육체의 조화이다.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를 형성한다. 창 2:24; 마 19:5, 6.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절제의 원칙을 준수함으로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정욕과 저열한 육체적 탐욕의 제단에 바쳐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권고는 순결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생애의 지침임을 믿는다. 살전 4:3-5.

우리는 교인들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성경은 이러한 결혼을 죄로 간주하고 있다. 신 7:3, 4, 6; 고후 6:14, 15.

우리는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믿는다. 마 19:3-9; 막 10:9-12; 롬 7:1-3; 고전 7:10, 11.

“유대인들은 지극히 사소한 허물을 가지고도 아내를 버릴 수 있었으며, 버려진 여자는 그 때부터 재혼의 자유를 허용받았다. 이러한 풍습은 큰 불행과 죄를 초래하였다. 예수께서는 산상 설교에서, 결혼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혼인 관계가 깨어질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셨다. 그분께서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 이니라'고 말씀하셨다.”-보훈, 63.

더 나아가 결혼 배우자들이 분가하거나 이혼을 해야 한다면 화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혼하지 않은 채 독신으로 머물러야 한다. 고전 7:10, 11, 39.

“이 서약은 죽음의 손 이외는 결코 갈라놓을 수 없는 띠로써 두 사람의 운명을 묶어 놓는다.”-교회증언 4권, 507.

더 나아가 우리는 결혼이 국가와 교회 앞에서 맺어져야 함을 믿는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든 이들은 신중한 고려와 열심있는 기도 후에 신앙을 가진 부모와 영적 권고자들의 권고를 구해야 한다.

10. 하나님의 법을 변경함

우리는 다니엘서 7:25절의 예언인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 성취되었음을 믿는다.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존귀케 하는 일을 금하는 둘째 계명이 십계명으로부터 삭제되었다.

인정받지 못한 주일 중 첫째날인 일요일을 국가와 교회의 안식일로 들여놓음으로써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변경되었다. 열번째 계명은 십계명의 수를 채우기 위해 둘로 나누어 졌다.

11. 모세의 의문의 율법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도와 성전 봉사의 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셨음을 믿는다.

이 규례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설명하며 장차 올 것들에 대한 그림자와 상징이었다.

의문의 율법의 유효성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에 끝나게 되었다. 히 10:1; 골 2:17.

“예수께서 갈바리에서 운명하실 때 그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유대인의 희생과 의식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큰 희생이 치뤄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며 ...”- 초기, 253, 259, 260.

-의문적이고 그림자가 되는 안식일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서 2:16, 17절과 갈라디아서 4:10절에 기록한 의문의 안식일들은 다만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의 그림자였음을 믿는다.

그리하여 이 안식일이 안식의 날로 인간에게 주어진 제칠일 안식일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창조시에 제정된 주의 날이다. 창 2:1-3; 출 20:8-11; 레 23:3; 사 58:13; 막 2:27, 28.

의문의 율법은 다음의 그림자의 안식일을 포함한다.

무교절(無酵節): 유월절 후에 무교절이 뒤따랐다.

유대력의 첫째 달 15일과 21일은 모든 사사로운 일을 제쳐두고 안식일을 기념하도록 되었다. 레 23:5-8.

오순절: 첫째 달 16일로부터 계산하여 50번째 되는 날도 안식일로 기념되었다. 레 23:15, 16, 21; 출 34:22.

나팔절: 일곱째 달의 첫 번째 날은 나팔을 부는 날로써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열렸다. 레 23:24, 25.

대속죄일: 대속죄일로 알려진 7월 10일은 가장 거룩한 안식일로 지정되었다. 그날은 여러 의문의 안식일들중 절정이다. 레 23:27, 28, 31, 32.

초막절: 7월 15일과 21일은 초막절로 기쁨으로 기념하는 날이었다. 레 23:34-36, 39, 40.

만일 예수께서 제칠일 안식일을 폐하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일요일을 제정하셨다면, 성경가운데서 그와 같은 기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물론 어떤 사도들도 안식일이 변경되었음을 기록하지 않았다.

오히려 율법의 불변성을 다음의 말씀들로 증명하고 있다.

마 5:17, 18; 24:20; 행 13:13, 14, 42-44; 16:13; 17:2; 18:2-4, 11.

12. 인간의 상태

우리는 타락후에 인간이 하나님으로 받은 특권과 높은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믿는다.

그때로부터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와 함께 죄 가운데 있어왔다.

인간은 연약성과 악의 경향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아래서 태어난다.

"그의 천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하여졌으므로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

"사람은 배반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고 이 세상은 하늘과 분리되었다. 이 두 사이에 있는 구렁텅이를 건너서 서로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정로의 계단, 17, 20.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므로 그의 본성은 악해졌다."-각 시대의 대쟁투, 505.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지신 분과 조화될 수 없었다.”-부조, 64.

이런 식으로 인류의 상태는 속절없게 되었다. 롬 5:12; 3:10-12; 6:23; 시 51:5; 마 15:18-20; 갈 5:19-21; 롬 7:18-20.

13.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다.

타락과 반역이 모든 곳에 편만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구원의 길은 이미 마련되었다. 엡 1:4; 2:8; 벧전 1:19, 2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였다.

우리의 대속죄물로써의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화해와 구원의 기초는 놓여졌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그분의 흘리신 피와 의를 통해 하늘 성소에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였다.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은 이 구속의 구원하는 행위 가운데서 나타났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되고 동시에 용서의 길이 나타났다. 롬 3:24.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베푸심은 한이 없다. 은혜의 보좌 자체가 최고의 매력의 장소인데 왜냐하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그 곳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시온좌 앞에 나아가자마자 그는 위대한 옹호자의 고객이 된다. 용서를 위한 그의 참회와 호소의 첫마디가 발해 질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간구를 마치 자신의 요구인 양 아버지께 드린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고, 남들에게 전해 줄 수 있도록 열어 주신다”-교회증언 6권, 363, 364.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 그것은 우리의 구속과 거듭남을 가져다 주며 그리스도와의 협력자로서 우리를 용인해준다. 딤후 2:11; 요 1:16; 벰전 1:13

자비는 값없는 은혜이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포함한다.

그분의 흘려진 보혈과 의를 통하여 회개하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요일 1:7.

14. 그리스도 우리의 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어떤 육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믿는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사 64:6.

우리의 믿음의 생애에 중요한 이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다음의 증언들을 인용한다.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므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 주셨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정로의 계단, 62. 롬 5:1; 1:16, 17; 3:23, 24.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가운데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이다. 인간의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준비가 된다.”-리뷰 1902년 9월 16일.” -그리스도 우리의 의, A.G. 다니엘스, 104.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소망, 762.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실물, 3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롬 8:1; 34; 램 33:15, 16.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의는 입혀진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의는 나누어진다. 첫번째 것은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이요, 두번째 것은 하늘을 위한 적합성이다.”-리뷰 1895년 7월 4일.”
-그리스도 우리의 의, A.G. 다니엘스, 98.

15. 회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과 성령의 역사아래 인간이 자신의 잃은 상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시 32:1-5; 51:3, 4; 요 16:7, 8.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의 감화에 순복할 때에는 양심이 각성되어 죄인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과 신성성을 얼마만큼 깨닫게 될 것이다. ...”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정로의 계단, 23, 24. 참조-고후 7:10.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우리 죄를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양심을 깨우치시는 성령이 없이 회개할 수 없다.

16. 죄의 고백

우리는 예수께서 회개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분의 피로 간구하시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용서와 칭의를 얻는다고 믿는다. 요일 1:9;

2:1.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28:13.

“주께서는 우리가 죄의 사유를 받기 위하여 무슨 괴로운 일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죄과를 속하기 위하여 멀고 지리한 순례나 또는 고통스러운 고행(苦行)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

“진정한 자복은 언제든지 명백하게 하고 또한 지은 죄를 꼭 지적하여 자백한다. 죄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자복하여야 할 성질의 죄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해를 입은 당자에게 자복하여야 할 허물도 있다. 또 어떤 죄는 공중에 대한 죄이므로 공중 앞에 자복하여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떤 자복이든지 그대가 범한 죄를 꼭 지적해서 명확하고도 요령있게 하여야 한다.”-정로의 계단, 37, 38.

17. 새로 태어남

우리는 자신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때 거듭남을 경험할 것을 믿는다. 요 1:12, 13.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과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 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소망, 173.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그리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된다.”-정로의 계단, 58, 59.

“새로 남으로써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옛 생애는 끝나고 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생애가 시작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468.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교회증언 9권, 23. 요 3:3-8; 1:12, 13; 겔전 1:23; 약 1:18; 벧후 1:3, 4.

18. 성경상 침례

우리는 침례는 하나님과 선한 양심으로 맺는 언약임을 믿는다.

그분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다음과 같다:

“...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 마 28:18-20.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영적 왕국에 들어가는 표로써 침례를 제정하셨다. 이 의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표시하면서도 옛사람을 묻고 그리스도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 2:37, 38; 8:36-39; 롬 6:2-5; 골 2:12.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공공연히 시인하는 것이다. 침례는

물에 잠금으로써 베풀어진다. 철저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과 침례 심사가 서약의 침례보다 선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침례가 투표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모든 영혼은 전에 속했던 교회나 교파를 떠나야 한다.

처음에 성경의 원칙에 조화되지 않았거나 무지한 상태에서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만 재침례가 베풀어져야 한다.

마 19:2-6.

19.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 사는 신자들의 몸이라는 것을 믿는다. 엡 5:23; 4:15; 골 1:18.

교인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의 매일의 가르침과 경험, 권고와 교훈들을 통하여 영원을 위해 준비된다. 딤후 3:15.

교회내에서의 생활과 행동에 대한 불변의 표준은 성경이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실제적으로 보여진 참으로 거룩한 의의 모범들과 사랑, 하나님의 십계명을 간직하고 있다.

각 시대마다 십계명을 통하여 배도와 반역을 규정하였고 마찬가지로 남은 교회를 식별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계 12:17; 14:12.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사도행적, 9.

그러므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신 위대한 중보의 기도속에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요 17:21; 엡 4:16.

우리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교회의 질서를 준수해야 함을 믿는다. 히 13:7, 17; 살전 5:12, 13 (주: 교회 질서와 조직에 관해서는 교회요람을 보라).

20. 세족 예식

우리는 세족 예식이 성만찬 예식에 선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서로를 겸손과 사랑 가운데 봉사하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며 그리하여 가까운 교제를 하도록 이끈다. 요 13:1-17.

“이 말씀은 육체적 정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 낮은 정결의 예증을 통하여 더 높은 정결을 말씀하고 계신다. 목욕하고 온 사람은 깨끗하지만 샌들을 신은 발이 곧 더러워지므로 다시 씻을 필요가 있었다. 그와 같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죄와 불결을 씻기 위해 열려 있는 큰 샘에서 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셨다.

그러나 유혹은 그들을 죄악으로 유인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아직도 그분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였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에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써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離間)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 버리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었다. 그 때 그들이 가졌던 정신으로는 그리스도와 의 교제를 위해 준비된 자는 하나도 없었다.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기념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 없었다.”-소망, 646.

21. 성만찬

우리는 성만찬 예식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기념임을 믿는다.

떡은 예수님의 몸의 상징이며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은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상징이다.

마 26:26-28; 고전 10:16, 17; 11:23-26.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실 때에 그분의 큰 희생에 대한 기념이 될 예식을 유월절 대신으로 세우셨다. ...”

“유월절 절기에 쓰던 누룩 없는 떡이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었다. 발효되지 않은 유월절 포도즙이 식탁에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떡과 포도즙을 흠없는 희생물인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사용하셨다.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발효로 부패되지 않은 것만이 '흠없고 점 없는 어린양'(벧전 1:19)을 대표할 수 있었다.”
-소망, 652, 653.

떡과 포도즙을 취한다고 해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예식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고 그것은 교회를 강화시키며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자아 성찰, 죄의 시인과 고백, 죄에 대한 참된 슬픔이 준비에 포함된다.

“침례와 성만찬은 기념적인 두 기둥으로서, 하나는 교회 밖에서 하나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의식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의식 위에 참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셨다.”-교회증언 6권, 91.

오직 침례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교회의 교인이 된 자들만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출 12:43.

22. 예언의 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약과 신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에 말씀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대하 20:20; 벧후 1:19-21; 히 1:1-3.

예언의 선물을 통해 주어진 교훈들은 하늘로 말미암으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주님께서는 이 선물을 준수하고 따르도록 당신의 교회에 주셨으며 그것은 성령의 인도아래 우리에게 주어진다.

계시록 12:17절과 19:10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지막 교회에 이 예언의 선물을 약속하셨다. 이 예언의 성취로 주께서는 예언의 선물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1844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멸망해 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언할 기별자로서 엘렌 G. 화잇을 사용하셨다.

그녀의 기록과 말로써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얻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확인하시는 모든 특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 구속자되신 예수께 대한 믿음, 십계명을 받아들임,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기별자의 사업과 생애 가운데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성경에 대한 그의 태도를 다음의 말씀가운데 설명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 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 17).”-각 시대의 대쟁투, 7.

하나님의 교회에 남자뿐만 아니라 신실한 여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별과 삶과 구원의 중요한 경고들을 전하는데 부름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가 있다. 미리암(출 15:20), 드보라(삿 4:4), 홀다(왕하 22:14-16), 안나(눅 2:36), 빌립의 딸들(행 21:9).

그리하여 참된 교회는 이 선물을 높이 평가하고 주님께서 주신 교훈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것이다. 교회가 이 선물을 무시하고 경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방법을 경멸하는 것이다. 잠 29:18; 대하 20:20.

23. 건강개혁

-건강과 영양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몸과 영과 혼은 주께 속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을 더욱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신성한 건강의 원칙들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눅 9:2; 살전 5:23, 24.

“건강 개혁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시킬 위대한 사업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손이 몸과 연결된 것과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건강에 관한 권면, 20, 21.

창조주께서 낙원에서 인간의 음식물을 지정해 주셨을 때 그분께서는 인간의 자양을 위한 최상의 토대-식물-를 보여 주셨다. 곡식류, 과일류, 견과류가 창조주께서 택하신 음식물이었다. 창 1:29. 채소는 나중에 추가되었다. 창 3:18.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류의 고기(조류, 어류, 그 외의 모든 육류)를 삼간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알콜성 음료와 카페인에 들어있는 음료(콜라 같은 음료), 자극적인 양념류, 신 치즈, 커피, 흑차, 담배, 온갖 종류의 마약들을 피한다. 우리는 우유에 설탕을 섞는 일도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고전 6:19, 20.

또한 재림 신자들로써 우리의 건강을 보존하는 일에 대해 예언의 신의 증언들을 통하여 많은 빛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인류의 첫번째 부부에게 주어진 음식을 천연 치료제로 삼음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오는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들과 이전의 좋지 않은 습관과 스트레스나 현대 생활의 다른 요인들로 인해 병에 들게 되어 의학의 도움이

필요할 때 될 수 있으며 같은 신앙을 가진 의사를 찾아야 한다.

특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가 되셔서 참으로 도움이 되시고 치유하신다는 약속에 신뢰를 둘 수 있다. 약물치료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에만 주의를 기울여 사용되어야 한다. 출 15:26.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치료, 127.

-의복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의복에 있어서도 개혁자들이다.

우리는 사치스럽고 건강에 해로운 옷차림, 정숙함의 표준을 위반하여 부도덕적인 상태를

직접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어떤 극단적인 유행의 의복들과 건강에 좋지 못한 신발들을 신어서는 안 된다.

“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땡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딤후 2:9, 10; 벴전 3:3-5; 사 3:16-24.

시선을 끄는 장신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머리에 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고전 11:14, 15.

예수의 사랑이 마음가운데 있을 때, 모든 신자는 이런 일들에 모본이 될 것이다.

24. 정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부를 임명하셨으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을 보호하고 악을 벌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 롬 13:3, 4.

이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강요를 받지 않는 이상 정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 4:19; 5:29.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과 부과금들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백성가운데 평화와 질서가 편만하고 각인이 자신의 믿음대로 살며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일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딤후 2:1, 2.

여섯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출 20:13),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로써 정치와 폭동과 유혈전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25. 맹세하는 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는 맹세와 거짓된 맹세는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믿는다. 마 5:34-37; 약 5:12.

참된 신자의 언어는 보통 “예, 예; 아니요, 아니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증언으로 복음과 일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요구된 맹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분되었다. 롬 1:9; 신 6:13; 보훈 66, 67.

26. 성소

우리는 먼저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천막으로 된 성소와 나중에 성전으로

지어진 성소가 구약 시대에 거룩한 예배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믿는다. 지상 성소는 바깥뜰과 성소, 지성소로 이루어졌다.

희생은 바깥뜰에서 드려졌다. 히 9:1-7.

피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죄는 성소로 옮겨졌으며 성소는 그것으로 더럽혀졌다. 죄로 인해 바쳐진 희생 제물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을 가리켰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선택되었다.

일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성소가 정결케 되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로부터 피를 취하여 언약궤 위와 앞에 뿌렸다. 이리하여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롬 6:23.

그때 중재자로서 그는 죄를 자기에게 지우고 그 죄를 성소로 가지고 간다. 그 죄는 산 염소에게 전가되고 그 후 그 염소는 광야로 이끌려나가게 된다. 이러한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 백성들은 화해하게 되고 성소는 정결케 되었다. 레 16:15, 16, 20-22.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된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 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 준다. ...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긴요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히 6:20)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각 시대의 대쟁투, 488, 489.

27. 2300주야

우리는 다니엘 8:14절의 2,300주야는 마지막 시대에 까지 이르는 명확한 기간을 나타낸다고 믿는다.

예언을 해석할 때 하루는 일년을 의미한다는 하루-일년의 원칙에 의하면(민 14:34; 겔 4:6),

2,300주야는 곧 2,300년이다.

다니엘 9:24-27절에 기초하여 이 시간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왕이 기원전 457년에 내린 세번째 조서로부터 시작된다. 이때로부터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의 시간표로부터 70주(490년)가 정하여 졌다. 이 기간은 유대 민족을 위해 정해졌으며 기원후 34년에 끝났다. 나머지 1810년은 “정한 때 끝”인 서기 1844년까지 이른다. 단 8:14.

이 해에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를 마치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모형적 봉사에서 일 년의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

그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 이 때에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421, 480.

이때 예수께서는 지상 성소의 봉사로 상징된 것과 같이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마지막 일을 시작하셨다. 조사 심판도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다. 단 7:9, 10, 13.

그리하여 땅에서 쉬고 있는 자들 중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격이 있으며 살아있는 자들 중 누가 변화되어 영원한 영광가운데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가 결정된다. 이 속죄봉사의 끝이 바로 은혜의 시간의 끝이 된다.

28. 복음을 전파함(선교)

우리는 예수께서 맡기신 위대한 복음 전파 임무를 믿는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우리는 말과 글로써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의무로 생각한다. 마 11:29, 30; 24:14; 막 16:15, 16; 행 1:8; 계 14:6-12.

29. 복음을 선포하는 수단(십일조, 첫열매, 헌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유주임을 믿는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로다” (시 24:1)

그분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얻게 된 모든 수입과 재산의 십일조를 내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십일조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기별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사용된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재산이므로 주님께서서는 십일조를 내지 않는 일을 사기로 여기신다.

창 28:22; 느 13:10-12; 말 3:6-12; 마 23:23; 히 7:4-9; 고전 9:13, 14.

“십일조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단순함과 공정함에 있어서 아름답다. 모든 사람은 믿음과 용기로써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단순성과 유용함이 결합되어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는 깊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사람은 고귀한 구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한몫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모든 남녀들과 청년들은 주님을 위한 회계원이 되어, 자금을 대한 요구에 응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 -교회증언 3권, 388, 389.

“십일조 외에, 주께서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의 첫 열매를 요구하신다.”-교회증언 6권, 384.

그 외의 연금들 즉 선교 연금, 감사연금, 안식일 학교 연금, 특별한 목적을 위해 드리는 연금,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리는 연금들은 복음 사업을 지탱하고 선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선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깊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우리의 십일조와 연금을 충실하고 양심적으로 낼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이기심과 탐욕을 정복하는데 도움을 주며 하늘의 축복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고후 9:6, 7; 행 20:35.

30. 세천사의 기별

우리는 계시록 14:6-12절의 기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을 믿는다.

삼중 기별로 연결됨으로써 이 기별은 멸망해 가는 세상에 마지막 경고와 구원의 기별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가리키며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기별은 창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경배하도록 모든 인간들을 설득하고 있다. 계 14:6, 7.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다. 여러 세기를 걸쳐면서 거짓되고 성경과 모순되는 종교 조직들이 자라나게 되었고, 오류가 섞인 혼잡(바벨론)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19세기 중반에 교회가 속히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성경적 기별을 거절 했을 때 이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거짓 종파들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르쳐 준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기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위협의 경고를 담고 있다.

계시록 14:9-12절에 보면, 짐승의 표(일요일)가 성경의 넷째 계명(안식일)과 서로 대치하고 있다. 출 20:8-11.

인류의 주의는 하나님의 율법 특히 안식일 계명(하나님의 인)에 집중된다.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의 목적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의 구속(拘束)하는 능력을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또 이 기별은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세 천사로 상징된 이 세 기별은 회개와 개심으로 이끄는 개혁을 가져온다. 특징들은 분명하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12.

이 자비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든 자는 일곱 재앙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예언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계 16장

세 천사의 기별의 전파는 재림 운동이 일어남으로 시작되었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31. 큰외침과 계시록 18장 천사

우리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렸던 대총회에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기별로써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그 기별은 계

시록 18:1-4절의 천사의 “빛”의 시작이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 가려뽑은 기별 1권, 363.

“이것이야말로(그리스도 우리의 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92.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가 큰 외침으로 증가되어 갈 때 또 다른 천사가 이 사업에 동참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아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11.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으로, 심각한 결과가 이를 뒤따랐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발발했을 때, 심각한 위기가 왔다. 넷째 계명과 여섯째 계명이 공공연히 범해졌으나, 십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함을 받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개혁사업을 진전시켜나갔다.

사실 이들은 계시록 12:17; 14:12; 3:14-22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그분의 사업을 종결시키는데 사용하시겠다고 예언하

신 신실한 남은 무리였다.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써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39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계 18:5, 4)도록 불리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604.

32. 144000인의 인침

우리는 성경이 구속받은 자들을 두 부류로 묘사하고 있다고 믿는데, 즉 아담의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은혜의 시간이 마칠 때까지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와 144,000명의 무리가 있다.

144,000명의 인침은 사업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와 함께 시작되었다. 십계명에 대한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들은 신실함을 보여준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나타내는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스스로를 구별한다. 우리는 인침은 사업이 은혜의 시간이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을 믿는다. 영적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으로부터 모일 것이다. 계 7:2-8; 14:1-5.

하나님의 인은 구속의 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선택하고 그분의 인도아래 복종하는 자들은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

님의 의를 받고 성령의 영향력아래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열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신자들 간의 관계의 인 또는 표시로 말씀된 거룩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다. 겔 20:12, 20.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인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바로 전에 있을 특별 부활을 통해 살아있는 인 받은 신자들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같이 그분의 백성에게 평화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구속의 “첫 열매”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며 셀수 없는 무리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 끌려 올려져 승천하게 될 것이다. 단 12:1, 2; 계 1:7.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인은 주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칠일 안식일의 준수에서 나타난다. ...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로,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교회증언 8권, 117.

“열 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하신 율법 제정자, 하늘과 땅의 창조 주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교회증언 6권, 350.

33.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든 사람이 볼수 있고 들을 수 있음을 믿는다.

계 1:7; 마 24:30; 막 13:26, 27; 행 1:9-11; 살전 4:16, 17.

모든 시대를 걸쳐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다려 왔다.

“아담의 칠세손”인 에녹이 재림에 대해 가르쳤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성을 보았다.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했고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신부 교회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다시 와서 데려가시겠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언

을 하셨다. 마 5:8; 유 14, 15; 히 11:8-10; 요 14:1-3.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왔던 자들은 그분이 나타나실 때 기쁨으로 환성을 외칠 것이다.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사 25:9.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속의 경륜의 절정이다. 부활한 자들과 살아있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기 위해 구름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시대의 징조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벤허 3:9-12; 살전 5:2-7; 딤후 3:1-5; 계 19:7, 8.

그분의 오심의 날과 시간은 우리에게 감추어졌다. 마 24:36.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마 24:42-44.

34. 죽은자의 상태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믿는다. 죽은 상태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교하셨다. 요 11:11-14.

선하든 악하든 모든 인간은 죽음 가운데서는 의식이 없다. 전 9:5, 6; 욥 14:12.

유일하게 불멸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부활 때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딤후 6:15, 16; 살전 4:13-17; 고전 15:51-55.

35. 부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무덤 속에서 잠자는 의로운 자들이 불멸의

상태로 부활하여 살아있는 성도들과 같이 구름 속으로 이끌려 주 예수께 영접되어 승천할 것을 믿는다.

살전 4:13-18; 롬 6:5; 고전 15:51-53; 계 20:6.

악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 천년 뒤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계 20:5(상단).

36. 천년기

우리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1천년의 간격이 있을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57. 살전 1:6-8; 사 24:12, 22

이 기간 중 이 땅에는 어떤 인간도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자연적 변화의 결과로 지구는 완전한 황폐한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이다. 렘 4:23, 24; 25:32, 33.

1천년간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살게 되고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지구는 황폐케 될 것이다. 사단과 그의 천사만이 이 곳에 살게 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59; 계 20:1-3.

천년기가 지난 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그때 악한 자들은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후 거룩한 도성이 내려오고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부활한 악인들과 거룩한 도성을 포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그 때 죄와 죄인은 영원토록 멸망될 것이다. 이리하며 지구는 정결케 된다. 계 20:4, 5(상단), 7-10, 말 4:1, 3.

37. 구속받은 자의 본향

우리는 천년이 지난 후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믿는다.
새롭게 된 땅은 구원받은 자들의 본향이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다. 만왕의 왕의 보좌가 그곳에 있게 된다. 사 45:18; 65:17; 계 21:1-3.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지혜롭게 세워진 구속의 계획을 통하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사 65:25; 벧후 3: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 21:3-5.